‘無시멘트 그린 콘크리트’

거액 특허료 받는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이 개발한 ‘무(無)시멘트 그린 콘크리트’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효자 기술이 됐다. 전남대는 16일 “(주)코단세라믹 등 2곳과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인터로킹 블록 등 6종의 콘크리트 2차 제품 기술이전비로 5억원과 앞으로 5년간 매출액의 3.5%를 경상 기술료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석회석 대신 고로 슬래그와 플라이애시(석탄재) 등을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이른바 ‘무(無) 시멘트’ 콘크리트로 친환경, 친건강적인 새로운 개념의 콘크리트 결합재 기술이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개발

기술이전비 5억원 이외

매출액 3.5% 기술료도

기존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큰 장점도 있다.

현재 콘크리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제조시 석회석 소성(塑性)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그린 콘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와 석탄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시를 결합재로 사용하므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측은 “신기술 적용에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품 생산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개발 기술에 대해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상용화 등을 꾸준히 추진, 학교 재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道 체육회관 매입 추진

34억 추경안 편성 …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시설 확장키로

현재 건립 중인 빛고을 시민문화관(옛 구동체육관)의 시설 규모가 크게 확장된다.〈조감도〉

16일 광주시는 빛고을 시민문화관과 인접한 광주시 남구 구동 전남도체육회관에 대한 매입작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에 34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최근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신설)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했다.

시는 빛고을 시민문화관 신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과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 체육회관의 매입에 나섰다. 시는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노인복지시설, 문화공간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도체육회관 부지를 매입할 경우 빛고을 시민문화관의 부지는 당초 1만5천263㎡에서 1만8천여㎡로 늘게 된다.

도 체육회관은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은 3천819㎡에 달한다.

이 시설에 입주해있던 전남체육회는 목포 남악신도시로 이전했다.

시는 4월까지 전남도와 부지매매 계약을 마친 뒤 오는 7월부터 건물과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는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문화교실, 다기능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

월 62만원 → 73만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아 사실상 농어업인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농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난해 월 62만원에서 올해 73만원으로 11만원 높아졌다. 기준 소득금액이 이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가,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일률적으로 3만2천850원이 지원된다.

기준 소득금액의 상향에 따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지난해 2만7천900원에서 3만2천850원으로 4천950원 증가했고, 1인당 연(年) 지원 최대한도도 지난해 33만5천원에서 39만4천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도 올 추경 1,566억 편성

일자리 창출·농어민 소득 증대 집중

전남도는 올해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천566억원을 편성해 16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비상경제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141억원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 60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564억원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448억원 등에 집중 편성됐다.

특히 도는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3억원 ▲성과 상여금 8억원 ▲해외연수 비용 1억원 등 인건비 관련 예산 18억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숲 가꾸기 사업·노인 일자리 지원·전남 긴급 돌봄 사업·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이다.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기초생활 보장급여·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으로는 대불 산단 교량하중 보강 사업과 나주역~공동혁신도시 간 도로 개설공사, 한옥보존 및 건립 사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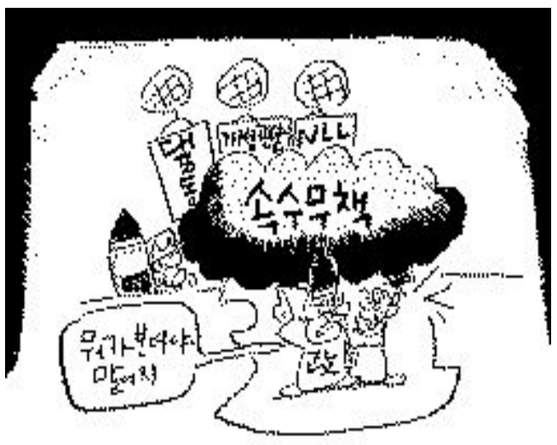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 등 비상경제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이뤄졌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곧 죽어도 황사탓 이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한 달이 되는 16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을 찾은 방문객이 추기경 사진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식지않는 김 추기경 추모열기

내달 5일 추모 미사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한 달을 맞는 16일 용인 천주교 묘원 성직자묘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1천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김 추기경을 추모하는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날 하늘을 부옇게 덮은 황사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김 추기경 묘소에는 삼삼오오 묘소를 찾는 추모객의 행렬이 이어졌다.

추기경 묘소 앞에는 30여 개의 꽃다발과 꽃바구니, 대구대교구 시각장애인 10여 명이 추기경에게 쓴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봉헌자를 밝히지 않은 ‘사랑의 이별연가’라는 제목의 헌시가 담긴 액자가 꽃과 함께 놓여 있었다.

광주·전남에도 김 추기경을 추모하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가톨릭계 장기 기증운동 기관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주도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이 열렸다.

또 교구 홈페이지에 김 추기경 광주 방문 사진 앨범을 싣고 추모하고 있는 광주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뜻을 기리고 ‘감사와 사랑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서울대교구에서 받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티커 1만부를 본당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 공식 추모기간 49일째이며 한식인 오는 4월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천주교 묘원 성직자 묘소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추모 미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 찾자’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내일 조선大서 세미나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은 18일 오후 4시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학 IT홀 3층에서 ‘경제위기시대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를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덕모 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과 호남권 발전정책’을, 오재일 전남대 교수가 ‘창의형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또 임내현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장병완 호남대 총장, 박성수 전남대 교수, 정형식 조선대 교수, 김혜선 순천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불황과 한국의 경제난,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 경제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 정 공 고

본보 2009년 2월 7일자에 게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중 판사 신승희를 판사 최영표로, 공시날자 2009년 10월9일을 2009년 2월7일로 각각 정정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한정승인공고

망 김태곤 (370628-1559512)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15
공 고 인:정성희,강순옥,강동식,강춘매,강명희,강명숙,강경희,강원식
한정승인수리일:2009. 3. 2
공고기간:2009. 3. 17~2009. 5. 16
연 락 처:광주 북구 용봉동 1355-1 현대아파트 302-704 강 순 옥(010-9440-1165)

한정승인공고

망 김광순 (420411-26267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 313
공 고 인:박희창,박단오,박순자,박영숙,박희준
한정승인수리일:2009. 3. 3
공고기간:2009. 3. 17~2009. 5. 16
연 락 처:광주 북구 삼각동 782-5 박 희 창(010-3601-4042)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09년 3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750,000,000원을 금 600,000,000원으로 감소하여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상환식 무의결권 우선주식 15,00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75,000주(보통주식 60,000주, 우선주식 15,000주)를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보통주식 6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구 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및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자 제출기간
2009년 3월 17일부터 2009년 4월 17일까지
2009년 3월 17일

주식회사 캔맥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7
대표이사 김 영 신

결산공고 접수안내

광주일보 공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 227-9600
FAX : 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태양열 온수기를 저가로 드립니다!!

※기존 태양열 온수기를 저가로 신품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공기열온수보일러(온수,난방,냉방이 가능한 제품) 를 저가로 드립니다.
※전기보일러 및 온수기(대용량, 소용량 전부 가능)
▶취급품목 : 필름난방, 전기온돌, 전기온수기, 태양열 난방시스템
★여러분의 난방 및 온수의 모든 어려움과 에너지 절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2개월 무이자 및 36개월 장기할부도 가능합니다.)

Daejin@solar (주)대진쏠라 제품문의 및 주문 063-838-2231

건 설 면 허

▶건설업 양도 양수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합병)
▶신규취득 /기업진단

부성 M & A ☎02)773-5690~1

전통 침·뜸 공개강좌

“알기쉬운 침구학세미나”

| 본강의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 체침, 부항, 경혈, 경락, 이침, 비만침법, 미용침법, 중국수침,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 본강의 : 매주(금) 2시~5시(4개월)
★ 월회비 : 90,000원(교재포함)
★ 추나침구사 등 중국자격증 취득기회
★ 미국,캐나다,호주,유럽,중앙아시아 등 해외이민,취업기회
★ 중국 요녕중의약대학 및 중의연구원 자격증 취득과정

| 공개강좌 및 설명회 일정 안내 |
광주 분원 3월 20일(금) 오후 2시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치료상담 및 진료는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세요.

☎1544-5359/062)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